

학습 자료

— 대학생들을 위한 저작권 노트 —



5차시. 저작권자의 권리를 말하다

1. 저작재산권의 종류

우리가 흔히 저작권이라고 생각하는 권리들은 대부분 저작재산권에 속해 있습니다. 복제권이나 배포권, 공연권 등이지요. 저작재산권 일곱 가지는 외워두면 쓸모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열거적 권리이고 이 외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저작재산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절 저작재산권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9.4.22>

제22조(2차적 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복제권

복제권은 저작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입니다. 원고의 출판이나 복사, 강연이나 음악을 녹음테이프에 수록하려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겠지요? 또한 2012년 저작권법이 개정되어서 일시적 복제까지 복제권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22항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서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면 복제에 해당한다고 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권리의 부여와 동시에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복제에 해당하더라도 사적 복제라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공연권

콘서트에서 가수가 노래를 부르거나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것, 동아리방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신입생 환영회에서 동영상 상영하는 것들이 모두 공연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3항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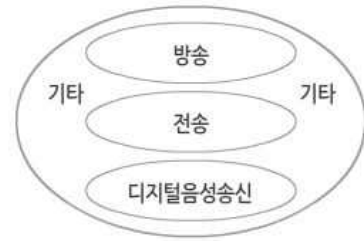
3) 공중송신권

공중에게 무형적으로 저작물을 전달하는 방법은 공연 외에도 방송과 전송, 웹캐스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는 기술발전으로 라디오 방송과 인터넷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방송권에 이어 전송권까지 도입하였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매체기술의 속도를 따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이용형태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웹캐스팅과 같이 방송처럼 실시간이면서 구성원의 요청에 의해서 저작물의 전달이 개시되는 디지털음성송신이란 개념을 신설하였고 방송과 전송 그리고 디지털음성송신 등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저작권자의 통제하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를 공중송신권이라고 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4) 전시권

미술이나 사진, 건축저작물의 저작자에게는 다른 종류의 저작물과 달리 전시권이라는 권리를 추가적으로 부여합니다. 전시권은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시가 되려면 공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 게시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 방에 걸어 두고 나만 보고 있다면, 이는 전시가 아니죠.

미술저작물을 전시하였다고 모두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술저작물의 소유자는 일반 공중에게 상시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전시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9조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등(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5) 배포권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양도, 대여하는 것으로 유상, 무상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23조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배포권은 정상적으로 거래가 된 경우, 권리가 ‘소진’됩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예컨대 돈을 내고 구매했거나 정상적으로 선물 받은 경우라면 더 이상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권리소진의 원칙, 최초판매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6) 대여권

배포권이 소진되다 보니, 저작권자에게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대여를 통해 판매를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그 결과 대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신설되었습니다. 단, 모든 저작물에 대해 대여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고,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만 권리소진을 부정하였습니다. 정리하면 배포권은 최초판매의 원칙에 따라 제한되는데, 그 제한의 예외가 대여권입니다.

저작권법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리소진의 원칙)

저작권법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7) 2차적 저작물작성권

번역하거나 편곡, 각색, 영화화, 게임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원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 원서를 번역하여 제출한 과제는 대표적인 2차적 저작물이다.

저작권법 제22조(2차적 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저작재산권의 특징

1) 열거적인 권리

앞에서 살펴본 저작물에 대한 7가지 권리 외에 다른 권리는 없으므로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EU에는 미술 저작물이 판매될 때마다 저작자에게 일부를 지불하는 추급권이란 것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권리입니다.

2) bundle of rights

7개의 권리는 각각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즉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고 원문의 복제 배포까지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월트 디즈니 사건 (대법원 1992.9.22. 선고 91다39092 판결)

원저작물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해설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복제 배포를 허락받았지만, 원저작물의 원문만을 또는 원문 그대로의 복제 배포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노래방 사건 (대법원 1996. 3.22 95도1288)

노래방용 반주기 회사에서 저작권료를 내고 기계를 제작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자들이 노래방에 저작권료를 내라고 찾아왔습니다. 노래방 주인은 노래방 반주기에 음원을 복사할 때 이미 저작권료를 냈다고 항변하였지만, 이에 대해 저작권자는 그건 복제에 대한 허락이며, 이번엔 공연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으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법원 판결 :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노래방 기기의 제작이나 신곡의 추가 입력시에 그 제작업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고서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을 복제하여 노래방 기기에 수록하고 노래방 기기와 함께 판매·배포하는 범위에 한정...

위와 같은 허락의 효력이 노래방 기기를 구입한 노래방 영업자가 일반 공중을 상대로 거기에 수록된 저작물을 재생하여 주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데에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3) 양도가 가능

저작인격권은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4)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사후 70년. 과거에는 사후 50년이었는데, 한-EU FTA 체결을 기점으로 2011년 6월 30일 개정법에서 사후 7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특허권이나 디자인권 등 다른 지식재산에 비해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상당히 긴 편입니다.

제39조(보호기간의원칙)

-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6.30>

제40조(무명또는이명저작물의보호기간)

- ①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6.30>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제42조(영상저작물의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제목개정 2011.6.30]

제43조(계속적간행물등의공표시기)

①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에 따른 공표시기는 책·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매책·매호 또는 매회 등의 공표 시로 하고,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종부분의 공표 시로 한다. <개정 2011.6.30>

②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의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최근의 공표시기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맨 뒤의 부분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종부분으로 본다.

제44조(보호기간의기산)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